

[오피니언]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화와 양기

디자인 사상

과학과 향방



천득업

“

시내 한가운데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공간이 되었을까?

”

우리는 광주를 스스로 예향이라고 부르고 타 지역인들에게도 그렇게 불러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의롭게 살고, 맛을 즐기는 고장이라는 의미로 의향과 미향을 첨가하여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광주가 예향이라는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 보여줄 것인가?

오랜 세월동안 예술적 토양에서 살아왔고 더불어서 창작활동을 하며 이를 즐기는 일상의 삶이 예향의 근간이 될 것이다. 남도의 향기가 물씬한 소리, 신명나는 춤사위, 페스티벌로 휴식을 즐기는 서화, 창작의 흔이 가득한 수많은 문인들이, 이러한 총체는 결국 장구한 시간이 농축된 전통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광주는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의 하나인 무진주의 옛터로 풍요로운 문화유산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 무진주를 예워쌓은 성과 그 가운데를 통통하는 넓은 주작도로, 동서남북의 성문, 우물터와 집터는 고대사회 음성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이와 더불어 광주에는 절터만 해도 여럿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인 동오층석탑이 있는 백천사지, 구 전남도청 주변으로 짐작되는 고려시대의 대왕사지를 비롯해 구 광주농고 자리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십신사지, 서오층석탑이 있는 고려시대의 성거사지, 만약 이들이 광주에 있다

사라져 버린 삶의 흔적들

면 천년고도의 도시공간은 얼마나 멋있을까? 계립동 구시청 터에는 광주사람들의 추억이 서린 경양방죽이 있었다. 지금부터 약 570년 전 쯤 김방이라는 사람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두동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 메마른 땅을 육토로 만들고자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쉽게도 시청사 건립과 택지 조성을 위해 1967년 완전히 매립되고 말았다. 시내 한가운데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공간이 되었을까?

과거 양립천이었던 광주천은 그야말로 광주의 젖줄이었다. 꾸불꾸불했던 광주천에서 아나들은 빨래를 하였고 어린이들은 물을 깃았는데, 아름다운 양파정은 지금은 물이 되었고, 광주천의 백사장인 장터, 조선시대 경승지였던 석서정 등은 일제가 천을 직강화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만약 광주천이 옛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문화적 서사로 가능하지 않을까?

목포항이 개항되자 서양의 선교사들이 광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듬해 광주천 건너편 한적한 양립산 자락에는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를 위한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서게 되었다. 배유지 목사가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던 최초의 교회, 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종원, 광주 최초의 신

식학교였던 수피아학교와 숭일학교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숙소를 비롯하여 그들의 기념관이 건립되었는데 이들은 현재도 잘 남아 있다. 이들 근대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간 몇 년 사이만 해도 남광주역사가 사라지고 YMCA 옆의 일본식 가옥이 헐렸으며, 기생들의 기숙소인 권번이 소리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활동 팔거리도 물가를 멀리하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

문화의 시대, 광주는 아시아적 가치를 구현하는 문화중심도시가 되고자 우여곡절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예향 광주에서 추구하여야 할 우리의 가치는 무언가? 민주와 인권, 평화, 교류, 창조, 연구, 교육, 향유, 문화산업 등 너무 많은 의미들이 나열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것은 자꾸만 낮은 가치로 인식되는 전통과 사라져만 가는 우리의 흔적을 어떻게 해서라도 현대공간 속에 자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재곤



며칠 전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있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으로 치석제거 치료(스케일링)를 받은 이 환자는 멀찌개 이를 닦은 뒤 찬물로 헹굴 때마다 시리고 유헌거리는 증상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은 잘못된 치석 제거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잇몸 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잘못된 치수질 습관을 꼽을 수 있다. 잘못된 치수질 습관 때문에 치석이나 치면 세균마저 생기고, 임증이 발생해 잇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치아 뿐만 주변의 잇몸뼈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시술을 하는

은 치아 마모를 증가시키는 한편으로 잇몸 염증을 증가시켜 잇몸과 치아 뿐만 아니라 병증을 유발한다. 시린 이 치료를 위한 약제 침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로 치아와 잇몸이 건강해야 할 뿐 아니라 치아 표면 또한 매끄러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어떤 종류의 치수이나 치약이 좋은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수질 방법이며,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치수질 방법을 답습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부모부터 물받은 치수질 방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치수질을 할 때, 치수는 입안 마지막 어금니의 뒷면까지 들어가야 한다. 어금니는 입을 닦고 낚

기고

김동화



최근 두 차례의 큰 자연재난이 발생했다. 베마의 사이클론(태풍)과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이다.

베마의 피해는 미안마 군사정부의 통제로 실상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가 10만명에 이르고 쓰촨성 피해는 사망 8만명, 실종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등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2005년 폭설 등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뇌적도 준설, 저류지 확장 등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시행중에 있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도입 초기 인 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최대 69%까지 정부와 자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보험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한정하고 있다. 혜택은 피해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전 국민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 특히 농어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험가입으로 인한 혜

시린 이 유감(有感)

데, 건강한 치아는 예방적 차원에서, 치주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치주 치료의 전단계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치석이나 치면 세균마는 치조골이 흡수된 치아의 뿌리 부분에 부착돼 있어서 이를 제거하면 치근연과 잇몸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치아 표면이 외부로 노출돼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겨울철에 입고 있던 내의를 벗으면 추위를 더 느끼는 것과 같다. 잇몸과 치근연 사이의 간극이 없어지는 데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극적이거나 차운 음식 등을 피해야 시린 증상을 없앨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가 시린 증상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처치를 하는 것 이 우선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치수질을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 잘못된 치수질

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주병이 진행된 사람들은 치수는 물론 치간치수이나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수모는 잇몸이 건강하지 않고 염증이 있는 경우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잇몸의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을, 건강한 사람들은 단단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에는 바로 치수질을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서 점점 견고하게 부착되기 때문이다. 세균은 수면 중에 급격히 증식하므로 취침 전 치수질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때 혀바닥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다.

이가 제대로 닦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린 혀로 윗앞니의 앞쪽에 매끈한 면을 허로 문질러 느껴본 뒤,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거친 부위가 느껴지면 그 부위가 덜 닦았으므로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

올바른 치수질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웃는 날을 기대해 본다.

〈서정치과 원장〉

식당내 엄격한 금연...청소년 흡연을 크게 낮춘다

얼마 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금연 조치가 10대들의 흡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팀은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조사했더니 식당내 엄격한 금연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자란 10대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자란 10대들에 비해 흡연자가 된 확률이 40%나 낮았다는 것이다. 금연 조치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흡연에 노출되는 일이 적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청소년은 스핀지와 같다고 한다. 스핀지같은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식당에서는 금연'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킬 것으로써 청소년들의 잠재의식에 '금연'이 뿌리깊게 자리잡는 것이다. 광주·전남도 조례를 만들어 미국처럼 적은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보면 한다. ▲이승호·목포시 옥암동

다단계에 빠진 대학생들 신용불량자 전략

대학 등록금이 급등하자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다단계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대학생을 적잖게 본다. 하지만 영업 마인드도 있고,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사채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학생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단계 영업에 뛰어든다. 물건을 팔아 야만 실적이 쌓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물건을 못 팔 경우 자비로 그 물건을 구입한다. 이것이 악화되면 은행이나 친인척, 동료 학생들로부터 몇 백만원 또는 1천만~2천만원씩 돈을 빌리게 된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시설

해외 관람객 유치 비상 걸린 광주비엔날레

오는 9월 5일 개막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9월에 아시아 지역에서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등 7개의 비엔날레 행사를 열리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준비와 홍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차치 '안방 잔치'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비엔날레가 국제 미술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의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대회까지 평균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고작 3.3%에 불과해 국제행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다.

같은 시기에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와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치밀한 행사준비와

에서 불리하다. 여기에 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정주제가 없는 점도 외국 관람객 유치에 걸림돌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올 가을 '아시아 비엔날레 전쟁'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유명 비엔날레가 해외 관람객을 독식하는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국제 비엔날레 시장의 추세에 비춰 볼 때 이번 대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적으로 전략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여부는 해외 관람객 유치에 달려 있다. 다양한 이슈와 연관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외 관람객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이 광주, 상하이, 싱가포르, 요코하마, 시드니 비엔날레를 퍼뜨리기로 묶는 상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은 기간 동안 치밀한 행사준비와 홍보전략으로 7회 대회를 계기로 세계 메이저 비엔날레로 도약하기 바란다.

美 쇠고기 수입 고시 '반발' 수습책 있나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어제 공식 발표됐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두 차례 연기됐던 고시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모두 끝났다.

고시 발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수입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초 중단 됐던 미국산 쇠고기 대량에 대한 경역이 9개 월여만에 재개돼 다음달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축산농가는 깨끗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을 벌여야 하고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서 식탁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국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애원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시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대국민사과→추가협상→인적 쇄신→국정시스템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는 것이다. 불법·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결국 파행의 장기화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과 초기 미숙한 대응이 사태를 기운 측면이 크다.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상당부분 정부에 있는 것이다.

고시가 발표됐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의 수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경 대응으로는 사태가 진정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냉각된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국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애원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시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無等鼓